

# 희망과 절망의 차이

**숨** 가쁘게 달려온 신사년이 저물고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교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교지와 함께 인항인 여러분은 또 하나의 계단을 밟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동안 자신의 꿈을 위해 바친 땀의 대가에 나름대로 만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절망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여러분을 보며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커가길 바랍니다.

사막을 여행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은 불덩이같이 뜨거웠고 어느덧 떠나기 전에 가지고 갔던 물마저 다 떨어졌습니다. 이미 지쳐 버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이 마르고 모래가 뜨거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얘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막의 끝까지 가야 하지 않겠니? 조금만 참아라.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을거야.”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사막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무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을 보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무덤을 보세요. 저 사람도 우리처럼 목이 마르고 지쳐서 마침내 죽고 말았어요. 우리도 이제 곧 죽고 말게 될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꼭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무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살았다고 생각하자꾸나.”

그러나 아들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여기 이 무덤을 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을거라는 말씀이세요? 분명 우리는 죽고 말거예요.”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처럼 얼마 가지 않아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희망을 갖는 사람과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항인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요? 인항인 여러분, 현재 자신의 처지가 자신이 바라는 것과 다르더라도 항상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항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희망과 절망의 차이는 바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사장 이경희